성신여자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교수자용

성신여자대학교 SUNGSHIN UNIVERSITY | 교수학습지원센터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전공과 학문 분야가 공존하는 우리 대학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대학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활용 여부와 범위는 전공 및 교과목의 특성, 학습목표와 수업·평가의 성격에 따른 교수자의 교육적 판단을 우선한다.
- 특히 AI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AI의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태도, AI를 활용하더라도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전공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기본 역량을 갖추고, 각자의 전공 맥락에 적합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생성형 AI의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면서도 대학 교육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책임 있는 AI 활용 역량을 갖춘 여성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

2. AI의 정의와 적용 범위

2.1 생성형 AI의 개념과 한계

-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사용자의 질문이나 지시에 따라 글,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AI를 말한다. 교수·학습에서는 아이디어 탐색, 자료 요약 및 분석, 글쓰기와 문제해결, 학습자료 제작 및 피드백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활용 여부와 범위는 교수자의 지도에 따른다. (이하 본 가이드라인에서 'AI'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생성형 AI를 의미한다.)
-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실제처럼 제시하는 환각(hallucination), 부정확한 출처 제시, 편향된 결과 등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형 AI의 결과를 활용할 때는 사용자가 그 내용과 출처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2.2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AI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AI 활용은 모든 교수·학습 활동에서 권장되거나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다.
- 개별 교과목에서의 AI 활용 여부와 범위는 본 가이드라인의 공통 원칙과 대학의 관련 규정 안에서 교수자가 학습목표와 수업 내용 및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교수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도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AI를 사용해야 한다. 별도의 안내가 없거나 허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AI 사용을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사용하기 전 반드시 교수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 교수자가 AI 활용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활동에 적용한다.

  - ✓ 교수자의 수업·평가 설계, 수업자료 제작, 채점과 피드백
  - ✓ 학습자의 수업 참여, 과제 수행, 발표, 토론, 팀 프로젝트와 시험
  - ✓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소통, 학습 지원과 피드백

- 연구와 행정 업무에서의 AI 활용은 해당 규정이나 별도의 지침을 따른다.

3. AI 사용 원칙

다음의 AI 사용 원칙은 교수·학습 과정에 적용하는 공통 기준이다. 교수자와 학습자는 AI를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주도적인 사고와 판단을 유지하고, AI 활용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활용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3.1 AI는 수업의 목적과 학습목표에 맞게 사용한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AI를 활용하는 경우, 수업의 목적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학습자가 직접 생각하고 배우는 기회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중요한 판단은 AI가 아닌 사람이 직접 한다.

AI는 생각과 판단을 돕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평가, 중요한 의사결정 등의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

3.3 AI가 만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한다.

AI의 답변에는 오류, 왜곡, 편향이 포함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사실과 출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수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4 AI 사용 사실을 밝힌다.

수업이나 과제에 AI를 사용했다면, AI가 만든 부분과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용 사실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

3.5 AI 활용 시 개인정보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타인의 글, 이미지, 음성, 코드 등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권리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정보와 비공개 자료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3.6 AI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AI를 사용했더라도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로 인한 오류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7 평가 시 정해진 AI 사용 기준을 따른다.

교수자는 시험, 과제, 발표 등 평가 활동에서 AI 사용의 허용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습자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AI를 사용한다.

4. 교수자 가이드라인

교수자는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학습목표와 수업·평가의 특성에 따라 AI 활용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고 다음을 실천한다.

4.1 수업별 AI 사용 기준을 분명하게 안내한다.

교수자는 학습목표와 과제의 성격에 따라 AI 사용 기준을 정하고, 강의계획서와 수업에서 반드시 안내한다.

- 과제와 활동별로 AI 사용의 전면 허용, 조건부 허용, 전면 금지 등 그 범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AI 사용 시 기록하거나 제출할 내용과 제시된 기준을 어겼을 때의 처리 기준과 절차를 안내한다.
- 팀티칭이나 분반 수업에서는 교수자 간의 협의를 거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수업 중 기준을 변경할 때는 내용과 적용 시점을 미리 알린다.

4.2 학습목표에 맞게 수업과 평가를 설계한다.

교수자는 역량기반 교육과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AI 활용 환경에서도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를 설계한다.

- 단순 요약이나 정보 재작성보다 분석, 적용 및 문제해결, 학습자의 경험을 요구하는 과제를 설계한다.
- 계획서, 중간 결과물, 피드백, 수정본 및 최종본을 활용하여 학습 과정과 AI 활용 과정을 함께 평가한다.
- 발표, 토론 등 수업 중 학습 활동을 병행하여 학습자의 실제 이해도를 확인한다.
- AI 활용이 학습자의 생각과 표현, 교수자와 학습자 및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대신하지 않도록 한다.

4.3 AI가 만든 내용은 교수자가 직접 확인한다.

교수자가 수업이나 평가에 AI를 사용했다면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과에 책임을 진다.

- AI가 생성한 수업자료와 평가 문항의 사실관계, 최신성, 출처 및 편향 가능성을 확인한다.
- AI가 생성한 인용문과 참고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원문과 비교하여 확인한다.
- AI가 제안한 채점 결과나 피드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교수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평가나 피드백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면 그 사실과 범위를 사전에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4.4 AI 사용의 공정한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교수자는 AI 활용 기준과 부정행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한다.

- 학습자에게 AI 활용 사실과 범위를 일관된 방식으로 밝히도록 안내한다.
- 맞춤법 검사, 번역, 형식 변환과 같은 단순한 보조 기능도 밝혀야 하는지 미리 정한다.
- AI 활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의 종류와 제출 방법을 사전에 안내한다.
- 교수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작성 과정과 관련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4.5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한다.

교수자는 AI 사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개인정보와 대학의 비공개 정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과제, 성적, 학번, 상담 내용, 평가 문항, 비공개 강의자료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는다.
- 자료 활용 전 AI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 후, 입력이 허용된다면 개인이나 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바꾼다.
- 글, 이미지, 음성과 코드 등을 사용할 때 저작권, 초상권과 음성에 관한 권리를 확인한다.
-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의 관련 부서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처리한다.

4.6 올바른 AI 사용법을 가르치고 교수자의 역량을 개발한다.

교수자는 올바른 AI 활용을 지도하고,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AI 활용 역량 또한 지속해서 개발한다.

- AI의 기본 원리와 가능성, 한계, 오류 및 편향 등을 이해하고 학습자에게 안내한다.
- 학습자가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자신의 AI 활용 방식과 이해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교수·학습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성찰한다.
- AI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기술과 대학 정책의 변화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교수·학습에 반영한다.

5. 학습자 가이드라인

학습자는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AI를 정직하고 비판적이며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각 교과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을 실천한다.

5.1 수업과 평가 활동의 AI 사용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다.

학습자는 각 수업의 과제, 시험 및 활동마다 AI 사용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교수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AI를 사용한다.

- 강의계획서와 과제·시험 안내문에 제시된 AI 활용 기준을 확인한다.
- 교수자가 허용한 도구, 기능, 과제 및 활동 단계에서만 AI를 사용한다.
- 활용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AI를 사용하기 전에 교수자에게 문의한다.
- 허용 범위를 벗어난 AI 활용은 학문적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5.2 AI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는 도구로 사용한다.

학습자는 AI를 정답 제공자나 대필자가 아니라 학습과 사고를 돕는 도구로 사용한다.

- AI를 사용하기 전 학습활동의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할 내용과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한다.
- AI를 활용하더라도 중요한 분석, 판단, 논증 및 결론은 학습자가 직접 수행한다.
- AI 산출물을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검토 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한다.
- AI 활용이 자신의 학습과 사고에 어떤 도움과 한계가 있었는지 성찰한다.

5.3 AI가 만든 내용은 학습자가 직접 확인한다.

학습자는 AI의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편향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제출 전에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

- 사실, 통계, 수치, 날짜 및 고유명사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한다.
- 인용문과 참고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며 원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법령, 정책, 학술정보 등 최신성이 중요한 내용은 최근 원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 AI를 활용했더라도 제출물의 정확성과 완성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5.4 AI 사용 사실과 범위를 명확하게 밝힌다.

학습자는 AI 활용 사실과 범위를 교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고 설명한다.

- 사용한 AI 서비스, 사용 날짜, 목적과 범위, 주요 프롬프트 등을 교수자가 요구한 방식에 따라 표기한다.
- AI 산출물 중 실제로 사용한 부분과 자신이 작성, 수정, 보완한 부분을 구분한다.
- AI 사용 기록과 결과물을 검토·수정한 자료를 안내받은 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제출한다.
- AI 활용에 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안내받은 사유와 제출 기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사용 과정과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5.5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와 저작권을 보호한다.

학습자는 AI를 사용할 때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대학의 비공개 정보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 자신이나 타인의 이름, 학번, 연락처, 사진, 상담 내용, 시험문제, 강의자료 등에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는다.
- 자료 활용 전 AI에 입력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 후, 입력이 허용된다면 개인이나 기관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바꾼다.
- 글, 이미지, 음성과 코드 등을 사용할 때 저작권, 초상권, 음성에 관한 권리를 확인한다.
- 개인정보 유출 또는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수자 또는 대학에 알린다.

5.6 올바른 AI 활용 역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발한다.

학습자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AI 활용 방식과 이해 수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개발한다.

- AI 활용이 허용된 경우, 학습목표와 과제의 성격, AI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구성·수정해 본다.
- AI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사실 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준수 등 책임 있는 활용 방법을 익힌다.
- 자신의 AI 활용 방식과 이해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학습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성찰한다.
- AI 관련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술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학습에 반영한다.

AI 활용 체크리스트 (학습자용)

- [ ] 과제·평가 활동에 적용되는 AI 사용 기준과 제출·표기 방법을 확인하고 준수했다.
- [ ] 과제 수행 과정에서 내가 직접 수행한 역할과 AI를 활용한 범위를 구분했다.
- [ ] AI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도구와 목적·범위를 정해진 방식으로 밝혔다.
- [ ] AI가 만든 내용을 검토하고, 과제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 [ ] AI가 만든 내용의 사실과 출처를 직접 확인했다.
- [ ] AI 결과를 활용한 부분과 내가 직접 작성·수정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 [ ] 개인정보나 비공개 자료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AI에 입력하지 않았다.
- [ ] 활용한 자료와 결과물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했다.
- [ ] AI 활용이 나의 학습과 사고에 어떤 도움이 되었고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기술, 관련 법령 및 대학 정책·제도의 변화와 함께 적용 과정에서 확인된 교수·학습 사례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개정 시에는 주요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안내한다.